

서울대, 이지바이오와 그린바이오 합작

서울대와 이지바이오그룹은 9월9일 산학협력 계약을 맺고 가금류와 관련한 축산전문기업을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9월14일 발표했다.

서울대기술지주회사와 이지바이오그룹 계열사인 마니커가 출자하며, 서울대가 강원도 평창군에 조성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기반으로 닭, 오리 등과 관련한 친환경 축산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대는 출자기업으로부터 얻는 수익금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NU 희망장학금> 사업에 배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09/15>